

전도서에 나타난 인생론

박 종 칠

코헤레트(Koheleth)에 대하여는 아주 많은 해석들이 시도되고 있다. 그 이유는 접근해가는 전체가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본문 자체가 어렵기도 하고 다르게도 읽혀지기도 한다는 데 있다. 그래서 나는 이 주제를 다루는 방법들이 여럿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코헤레트와 고대 오리엔트”(Koheleth und Der Alte Orient)라는 책을 쓴 V. O. Loretz의 사상에 이 논문이 많은 빛을지고 있다는 것을 겸손히 시인하고 싶다. 그러나 내가 의도한 목적에 맞게 많은 자료들을 더하거나 혹은 생략하였다. 그리고 각주에 숫자와 문장의 밑줄을 그음으로서 표시했다. 성구의 인용은 여러 주석들의 도움을 입어 내 손으로 조사하였다. 폰 라드가 말한 것과 같이 “코헤레트는 자기가 하고 있는 질문 가운데 지혜문학의 전통에 굳건하게 서 있다”¹⁾ 코헤레트는 삶의 의미를 푸는 열쇠를 얻기를 동경한다. 그는 어떻게하면 만족을 발견할 수 있을까 하여 인생을 모든 각도에서 시험하여 본다. 그는 하나님만이 그 열쇠를

1. Von Rad, *Wisdom in Israel* (1972) p. 229

가지고 계시며 모든 사람들이 그를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코헤레트가 염세적인 경험²⁾ 을 하였다고 생각하여 여러가지 배경³⁾ 으로부터 그 정보를 찾으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므로 우선 염세주의의 정의부터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코헤레트를 주석하는 데 있어서 그것의 특성으로 염세주의를 들 수 있는 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용어는 아직 생소한 편이다. 콜리지(Coleridge)가 1815년에 영국 타임지에 처음으로 사용하였고 1819년 쇼펜하우어에 의하여 독립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결국 이 용어는 1878년 프랑스학술원(Academy)의 공식 인정을 받게 되었다. 쇼펜하우어는 다음과 같이 철학적이면서 조직적인 정의를 내렸다. “세상은 있을 수 있는 상태 중에 최상의 상태라고 하는 라이프니츠식의 쉽고 퀘변적인 논증들이 있지만 그에 반해서 세상은 가능한 가운데 가장 나쁜 상태라고 하는 솔직하고도 진실한 논증이 있다. 여기서의 ‘가능한’이란 말은 환상적인(Vorphantasieren)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고 파악할 수 있는 것을 가리킨다. 이제 이 세상은 겨우 성립되어 있을 수 있어야하는 만큼 있다. 즉 그것이 조금 더 악화된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버티어 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혀 가능하지 않은 것은 존재할 수 없으므로 세상은 가능한 가장 최악의 상태 중의 나쁜 상태에 있는 것이다.”⁴⁾ 웨스터 영어 사전도 비슷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가능한 생각할 수 있는 중에 가장 나쁜 상태.” A. Martin은 그의 논문 ‘염세주의와 낙천주의’에서 염세주의 이론 중에서 이것이(Koheleth) 제일 심한 말이라고 말하고 있다.⁵⁾ 이 작가가 보고 있는 대로는 사물

2. Siefried, D. G. Wieldeboer, H. Gunkel (RGG IV 1930, 140f), Eissfeldt Intro. 610, C. C. Forman (JSS IV 1958, 155), Scott, von Rad.

3. Forman과 Eric의 논문을 보라.

후자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코헤레트는 아마 염세주의자인 것 같다. 그러나 그의 염세주의는 팔레스타인을 생각나게 한다.” PFF

4. *Sämtliche Werke* (Darmstadt 1961) 747.

5. J. Hastings 편, *종교와 윤리 백과사전* in loc.

을 최악의 상태로 바라보는 마음의 태도가 강조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구약에 있는 창조의 교리를 따른다면 이러한 철학적이고 염세적인 세계관을 버려야 한다. 창조물이 선하다(창1:4, 31)는 선언은 구약 여러 군데서 발견할 수 있다. koheleth 역시 위와 같은 철학적인 개념의 염세주의와는 상이한 것이다. 그러나 Koheleth는 세계에 대한 염세적인 견해를 그 자신 나름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것은 역사와는 무관한 진공상태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한 개인적인 공적 경험을 한 후에 된 것이다. 이 사실은 우리가 Kōheleth의 성격을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Koheleth는 세계현상을 실제적으로 바라 보았다. 그 결과 그는 이 세상의 선하신 창조질서에 반하여 피상적인 낙관주의에 반대되는 많은 것을 보게 되었다. 성경의 지혜문학(잠언, 율기)의 일반적인 성격과 같이 Koheleth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문제에 많은 관심을 쏟지 아니하고, 현재의 침울한 세계에서 비록되는 삶의 방식, 즉 무용성, 가변성, 그리고 노동(1:4~11)과 지혜(2:1~), 부(2:18~20), 자연적인 불변성(3:1~13), 미래에 대한 불확실(3:14~23)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주제들은 이 책을 일관하여 흐르고 있는 것이다. Koheleth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인간을 위하여 사람의 ‘기업’, 즉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허락되고 축복받은 삶의 장소에 대한 문제를 답하려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이다”⁶⁾ 그는 삶의 의미, 즉 구원 그 자체에 대한 질문을 추적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태도를 ‘염세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나는 먼저 Koheleth가 보고 있는 수평적 세계의 제법 중요한 염세적 측면에 대한 그의 견해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다.

6. Von Rad는 회의주의를 “역사와 개인의 삶을 적극적으로 자유자제로 간섭하지는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라고 정의하고, Koheleth에서만 회의주의 “다른 데서 들어 보지 못한 redicality와 무게감을 지니며 광범위한 기조를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 (구약신학 1권 453-454) 그래서 그는 Koheleth를 후기 가경 지혜 문헌들과 같이 늦은 연대로 분류하고 있다.

7. Ibid. 455

1. 사회의 무질서

Koheleth는 명확한 통찰력으로 인생과 사회의 어두운 부분을 판별해 내고 있다. 그래서 그는 사회적 부정과 불의를 지적하는 것이다.

내가 해 아래서 또 보건대 재판하는 곳에 악⁸⁾이 있고(3:16)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을 억압하는 것이다.

또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도다. 오후라,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희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저희를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저희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⁹⁾

비록 구약 성경 기자들의 상호 독립성의 상황에 대해 모른다 할찌라도 구약은 많은 면에서 반대를 표시하고 있다(신24:14, 레5:23, 시103:6, 146:7, 잠14:31, 22:16, 28:3, 램7:6, 겔22:29, 말3:5, 나5:1~13등) 이러한 불의에 대해서 놀라서는 안되는 것이다.

8. 칠십인역(LXX)은 이것을 “하나님을 모르는”(ungodly, 히라샤)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9. 반대되는 평행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아야 된다: mnqm (복수자 Kittel), mns'a (Gre), mchl (ört) Ginsberg. “Koheleth에 대한 보조적 연구들” 41. — “그것을 말한 것이 남아 있지 않다”

10. O. Loretz; Koholeth와 고대 오리엔트 263, 269. 예는 g'bh'm' l g'bh smwn)gb'r 라고 되어 있다. by haplography. 그러므로 smr'l 참조 삼상 26:16, 16, 장6:22

11. Barton; “이 절은 해석가들에게 난제로 되어왔다.” “그러나 an Advantage to a country on the whole is a king, an agricural land.” Gallig; mlk lsr wlibd “왕은 왕자와 노예를 위하여 가까이 있다” Loretz; mlk lsrh b'bd → mlk chclh 그'bd Leupold; “전체적으로 볼 때 경작된 땅을 관할하는 왕이 있다는 것이 한나라로서는 유익이라.” 그러므로 그는 압제에 직면한 가난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찾는 것이다.

너는 어느 도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공의를 박멸하는 것을 볼찌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 보다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음이니라.¹⁰⁾ 땅의 이익은 못 사람을 위하여 있으나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5:8~9)¹¹⁾

부자는 소유에 대한 갈망으로 인하여 소유물과의 잘못된 관계를 가지게 되어 땅에서의 삶을 적합치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의로운 중에 멸망하는 의인도 있고 자기의 악행 중에 장수하는 악인이 있는”(7:15) 것이다.

그리고 부정은 통치자의 실수를 더욱 커져가는 것이다. 통치자는 정의를 실현하는 데 거의 관심이 없으니 악인들은 악을 행하는데 용기를 얻는 것이다:

악한 일에 징벌¹²⁾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because)¹³⁾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 하도다(8:11)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8:9)가 있는 것이다. 확실히 통치자의 실수때문에 어려워지는 일이 있다.

내가 해아래서 한가지 폐단(unintentional) 곧 주권자에게서 나는 허물인 듯한 것을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방백들은 종처럼 땅에 걸터 다니는도다. (10:5~6)

그러면 결론은 무엇이가? 통치자보다 다스림을 받은 사람이 나은 것이 아닌가? 새 왕이 새로운 어떤 것을 할 것인가? 새 왕 역시 그 전 왕이 하던것과 똑 같은 것을 할 것이다. 그래서 위대한 왕에 대한 기대를 할 근거가 없는 것이다.

12. 예1:20, 스6:11, 단4:14 JJ Rabinowitz는 *More on Grecism in Aramatic Document*에서 Bid. XLI (1960) 74 “악(즉, 범죄)에 대한 사형의 심판이 시행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다.

13. “because”란 말은 사람의 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미혹됨을 지적하는 것이다(insanity) Section D를 더 보라.

14. 나는 Gordis의 생각을 따른다 그것이 제일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참조 BDB5526.

왕의 뒤에 오는 자가 무슨 일을 행할꼬 행한지 오랜 일일 뿐이다.¹⁵⁾ (2 : 12하반절)

그러므로 Koheleth는 그의 현재와 미래에 대하여 아름다운 그림을 그릴 수가 없는 것이다. 그의 앞에는 사람은 땅위의 불의한 통치자를 보고서 놀라서는 안된다는 냉정한 통찰만이 남아 있을 뿐이었다(5 : 7~8) 우리는 현재나 미래의 유능한 인물이나 왕으로부터 기대할 만한 더 나은 상황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Koheleth는 염세주의자라고 할런지 모르겠다.

2. 재물과 돈

사회적인 무질서는 소유의 문제, 즉 가난한자가 받는 압제와 부자의 축재, 이를 일으킨다. 부자는 교만과 광패는 악을 일으킬 뿐이다. 이런 사람들은 “헛됨”(vanity)을 더할 뿐이다. 재물들을 모두 “새처럼”(참조 잠 23 : 4~5) 날아가리라 Koheleth는 재물에 대하여 여러 각도에서 생각하고 있다. 결국에 도달한 생각은 재물이란 삶의 즐거움을 위한 최선의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자기의 미래사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방황하는 동안에 물건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마저도 소망을 주지 못하는 불확실한 것이 되는 것이다. 자기가 죽고 난 뒤에 다른 사람이 자기의 소유물을 취하게 되는 것이다. 부와 돈은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닌 것이다.

내가 해 아래서 나의 수고한 모든 수고를 한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자에게 끼치게 됨이라……내가……수고한 모든 결과¹⁵⁾를 저가 다 관리하리니. (2 : 18~19)

15. Slit : 유대인의 용어임 (2 : 19, 5 : 18, 6 : 2, 7 : 19, 8 : 4, 8, 10 : 5,

Est. 9 : 1, Sir. 47)

약간은 아랍어에서 기원한 것 같다 : E. Y. Kutscher JAos Lxxiv (1954) 239, Yaron, Bib. XLI (1960) 257. 386, Zimmerl : , Ezechiel 338 slit (cf. 창 42 B, 겔 16 30)

재물의 저축이 그것을 얻기 위해 많이 수고한 사람에게 돌아가기 보다 오히려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참조 6 : 2)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게 되니 이것이 쓰디 쓴 허무감을 몰고 오는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편안히 쉬는 것이 더 나은 것이다 :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보다 나으니라.¹⁶⁾ (4 : 6).

재물을 얻기위해 수고하지만 여기에 질투가 담기게 되고 소유욕은 충족되지 아니하고 한이 없게 되는 것이다 :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으니 아무도 없이 홀로 있으나 수고하기를 마지 아니하며 부를 눈에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도……(4 : 8)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¹⁷⁾ (5 : 9)

사람의 수고는 다 그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차지 아니하느니라. (6 : 7)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갈망하면서 돈을 손에 쥐기를 바라는 데 그것은 “돈은 모든 요구를 다 들어준다”¹⁸⁾ (10 : 19)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 역시 헛된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앞으로 만날 보이지 않는 죽음으로 인하여 불행한 쓰라림을 맛보기 때문이다. 운명의 바램이 모든 재물위에 한 범만 불어도 다 없어 질 수 있는 것이다.

내가 해아래서 큰 폐단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 되도록 지키는 것이다. 그 재물이 재난을 인하여 패하나니 비록 아들은 남았으나 그 손에 아무 것도 없느니라. 저가 모태에서 벌거 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대로 돌아가고. (5 : 12~14)

Koheleth는 재물과 돈이 가지는 효과에 대하여 생각할수록, 염세주의자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것들은 삶의 기쁨보다 오히려 불의와

16. 흠정역은 정확하지 아니하라. 참조. Leupold in loc.

17. Gordis 는 la th'ah 를 la tbwah 를 바꾸어 평행구로 만들고 있다. 그러나 명사의 의미를 그대로 지키는 것이 더 나은 것 같다.

18. C. H. Gordon KAL (195 (1956) 132

슬픔과 불안한 것만 안겨주는 것이다. 그는 여기에서 “고통스러운 악”(painful evil)과 그것들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애쓰는 것의 허무함을 보고 있는 것이다.

3. 인간의 악

Koheleth는 약간 해학적(satirical) 방법으로 인간의 도덕적 부패를 표현하고 있다. 죄악의 좌소는 바로 인간 안에 있는 것이다. 인간의 마음 속에 죄악의 뿌리가 내려져 있는 것이다: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 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9:3). 그러나 그는 이러한 악의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단지 그는 인간이 수고하는 것이 “이웃에게 시기를 받는”(4:4) 것이 되는 점을 수평적으로만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실패하게 되고(7:20)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저주하게 되고 만다(7:21, 10:21) 그는 사람이 자기 동료로 부터 분리되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남·녀 모두 악한 것이다.

내 마음에 찾아도 아직 얻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일천 남자 중에서 하나를 얻었거니와 일천 여인 중에서는 하나도 얻지 못하였느니라.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죄를 낸 것이니라. (7:28-29)

이러한 말로 Koheleth는 사람에 대해 부정적인 판단을 함으로 결론을 맺고 있다. 그는 여인의 악¹⁹⁾ 7:26) 뿐 아니라 남자의 악(7:28)도 보고 있는 것이다. 비록 Koheleth는 여인이 더 악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남자와 여자사이를 구분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정직하게 만드신 것이다.²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19. 어떤 사람은 “여인”을 풍유적으로 “이방철학”이라고 해석한다. (Leupold) 그리고 29절의 “그들”도 역시 여인과 같이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 eg. K. Barth. 교회교의학 III권 1항

20. sr 은 지혜문학의 용어이다: 시25:21, 37:37, 잠3:32, 8:9, 욕1:1.

은 하나님을 떠나 자신들의 악의 길로 가버린 것이다. Koheleth는 남자와 여자 모두가 낙관적인 색채로 보지 아니하고 염세적인 태도를 보고 있는 것이다.

4. 범죄의 동기²¹⁾

Koheleth는 자기 자신을 지혜자라고 부르고 있는 데, 이 점이 자만스러운 것 같이 보이기도 하나 지혜로써 “통달하려고”(7:25, 27) 노력하는 점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지혜가 자기에게서 “내가 지혜롭게 되리라 하는 말이 나와는 관계없는 정도로 멀리 떨어진 것이고, 멀리 떨어질 뿐 아니라 깊고 깊어서 그 누구도 발견할 수 없는 것이라”(7:23-24)고 피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신비의 배일이 인간에게 들려쳐진 것이다. 그는 가끔 이 놀라운 신비를 하나님의 사역으로(8:7, 11:4, 5) 언급한다. 그는 하나님의 원대로 하시며 자유로운 속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Koheleth를 이해하기 위하여는 그가 비록 밖으로 드러나게 표현은 아니했지만 의식적인 전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것은 바로 죄의 무감각성과 무동기성(senselessness and motivelessness)의 수수께끼인 것이다. 이것은 어떤 한 사람이 얻은 것이 다른 사람의 질투를 이유없이 일으킨다는 말로 표현할 수 밖에 없는 인간의 지혜의 한계와는 매우 다른 것이다. 앞에서 인용했듯이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죄를 낸 것이다.”(7:29) Koheleth는 인간 지식의 단순한 부족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으며 추상적인 문제에는 전혀 흥미가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 Koheleth는 지혜의 한계를 냉소적으로 말하고 있다: “지혜가 병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한 죄인이 많은 선을 패케케 하느니라.”(9:18) 그래서 그의 의도는 죄의 근거없음과 무동기성(groundlessness and motivelessness)를 보이는 것이

21. If it is true that to Koheleth is pessimistic 왜 그럴까? 나는 이 문제를 많은 책에서 아직 다루고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다.

된다. 인간의 행동은 하나님의 창조의 선하심에 대비가 되게 보이고, 죄는 인간이 범죄하여 멀어져간 모든 행동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점을 Adlers는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인간성 속에 담겨있는 우주적인 타락을 향한 범죄는(의 원인) 하나님 자신속에 있는 것은 아니다”²²⁾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인간의 범죄 사이에는 어떤 인과 관계의 줄을 놓을 수가 없는 것이다.

Koheleth는 지혜를 구했으며, 사물의 이치를 통달하며, 악한것이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미친 것인 점을 알기를 소원했다. (7 : 25). 그러나 원인을 알 수 없는 죄의 실재성(9 : 13~16) 때문에 그런 관심을 버리게 되었다.²³⁾ 만약 불쌍한 지혜자(9 : 13~16)가 Koheleth 자신이 아니라고 하는 어떤 주석가들의 말이 옳다면 그는 개인적으로 절망했을 것이며, 이런 의미에서 그는 염세주의자인 것이다. Koheleth자신은 말하자면 모든 면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악의 실재성 앞에서 있는 셈이다. 그리스도는 “그들이 연고없이 나를 미워한다”고 하셨다. (요15 : 25) 이 점을 고려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Koheleth를 바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²⁴⁾

결 론

나는 지금까지 Koheleth가 물질적인 가치, 사회적인 가치, 인간관계의 가치, 심지어 신비적이며 내적인 생활의 여러가지 측면에서 그 자신의 염세적인 견해를 가진 점을 조사하였다. 이 염세주의가 “가능한 가운데 가장 나쁜” 것이라고 세상을 표현한 쇼펜하우어가 가진 염세주의와

22. 그러나 Adlers가 지적한 대로 “Koheleth는 여기에서 일반적인 진리를 선언하고 싶어하는 것이다.” 212. op cit. 169. “de schuld voort de algemeene Verdervenheis Venheis dic bij het merschdom vult op te merken, niet bij God ligt.”
23. 어떤 주석가는 이 불쌍한 지혜자(9 : 13~16)를 Koheleth와 동일시 하고있다. (eg. Goodis)
24. 이점에 있어서는 K. Barth의 해석은 꼭 살펴 봐야 한다. 그는 성경에서 죄를 찾아 낸 것이다(참고, 교회교의학Ⅲ권 1장)

같은 의미일까? 그는 악이 선을 이긴다. 그러므로 살지 않는 것이 좋다고 그는 말하고 있는가?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에 대한 인간의 감사한 피를 말하고 있다(7 : 29) 그는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선하다고 하는 구약의 일반적인 견해를 지니고 있다.²⁵⁾ 물론 그는 어떤 사람의 운명에 대해 말하기로 했다: “출생하지 아니하며(4 : 3), 낙태된 자가 낳다”(6 : 34) 두 경우의 아주 특수한 삶, 즉 압제 아래서와 기쁨이 없는 슬픔의 삶을 말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그가 두 경우에 있어서 삶을 전체적이고 종극의 운명의 견지에서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다른 곳에서 정 반대의 진술을 함으로써 자기의 염세주의적 생각의 질을 더 높이고 있다: “모든 산 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9 : 4) 어떤 곳에서 Koheleth는 웃음보다 슬픔을 더 나은 것으로(7 : 3) 말하다가 뒤에서는 기쁨을 명하고 있다. (8 : 5) 그가 삶의 상대적 가치를 발견했을 때 그는 “잠언에 잠언은 더하였다.”²⁶⁾ 그는 삶을 완전히 부인하는 교리를 피하고 있다.²⁷⁾ 그가 삶의 슬픔과 집에 대해서 말할 때 적어도 우리가 맛소라 본문을 따르다면²⁸⁾ 그가 자연이 선하나 악하나 하는 문제에 대해 조금 밖에 관심이 없고 피조물의 도덕적인 행, 불행의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

25. Koheleth는 창세기의 창조교리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C. C. Forman은 “Koheleth와 창세기의 사육”과의 관계를 발견하려고 시도했다. JSS V 256f. 왜냐하면 Yaweh란 말이 Koheleth에는 없는 반면 Elohim이란 말은 37 회나 나오기 때문이다.
- E. Wölfel (Luther와 die Skepsis)와 K. Gallig(ZTK LVIII 12)는 Koheleth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이고 역사적인 개념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던 것이다. Loretz를 보라(Ibid. 279f.)
26. P. F. Ellis. 인간과 구약의 멧세지(1963) 487
27. Von Rad의 Koheleth 정의인
1) 허무 2) 결정주의 3) 하나님의 임의성은 인간을 자살하도록 유도하는 것 같다: “죽은 자에게 찬양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Wisdom in Irsael* 235.
28. 70인 역은 분명한 윤리적 개념을 나타내고 있다: “정통 유대인의 삶에 대한 견해에 뿌리박고 있는 윤리적—신학적 개념” S. Holm-Nielsen을 보라 “초대 기독교에 있어서의 Koheleth해석에 대하여.” *Nov. Test.* (1974).

지지 아니한 것을 알 수 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일어나는 삶의 문제의 신비적 성격을 자주 강조하고 있다. (3 : 11, 7 : 14, 8 : 17, 11 : 15)

우리는 Koheleth가 “헤벨”이란 말을 좋아하는 것을 볼 수 있다.²⁹⁾ 이 말로써 Koheleth는 인간이 여하한 방법으로든지 자기 자신이 뭘든과 같은 불멸성에 이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다. 인간은 스스로 독립적이지도 영원하지도 않는 것이다. 이 hbl이란 말은 “일반적인 삶에 대한 그의 판단이 아니라 단지 창조된 세계를 그 자체의 목적으로 다루려는 노력에 대한 판단일 뿐이다.”³⁰⁾ 우리는 “행동과 그 결과에 대해 어떤 양식과 모양으로든지 운명을 초래하는 연관을 볼 수가 없다.”³¹⁾ 그러므로 우리는 Koheleth에서 세계의 목적들(mundane objects)을 기록함에 있어서 낙담한 어조를 발견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로 이점에 의하여 Koheleth가 말하는 적극적인 목적, 즉 하나님과 인간사이에 새롭고 깊은 대면에 이르게 된다고 믿고 있다. 해·아래서의 인간의 노력의 전적 허무를 지적하면서 Koheleth는 하나님의 선물(그리스도의 복음)을 상기시키고 있다.³²⁾ 그러므로 Koheleth에게는 인간은 단지 헛되고(헤벨) 변화무쌍할 뿐이고 하나님만이 영원하게 영광스럽게 행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만약 Koheleth가 허무적이라면 그것을 인간 편에서 그런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는 아닌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선하게 창조하셨고 하나님 자신의 뜻을 따라 인간에게 삶의 즐거움과 행복을 주셨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을 볼때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다.³³⁾ 비록 그는 신약의 밝은 소망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해 아래서가 아닌 하나님에 의한 심판의 원리를 한꺼번에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될 것이요.” (8 : 12b)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롬8 : 28) 믿었다. 이런 의미에서 마지막 장들에는³⁴⁾ 두려움으로 인하여(예, 3 : 14, 5 : 6, 7 : 100, 8 : 12~13), 심판으로 인하여(3 : 17, 8 : 5~6)³⁵⁾ 이미 반짝이는 신앙과 시간을 절약하라고 독자들에게 도전을 나타내기도 하는 데 이것은 삶의 불확실성(11 : 6)에 의하여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극이 되며, 인생의 짧음때문에 절망한 것이 아니라, 인생의 호시절에는 아름다운 그 축복들을 감사하며 즐기는 것이다. (11 : 95, 참조 2 : 245, 5 : 185, etc) 그리고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공경하고 섬길 것을 나타내고 있다. (12 : 1~14)³⁶⁾ (조교수. 역사신학)

이 논문은 컨콜디아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는 기간동안 영문으로 쓰여진 것을 (1975) 고신대학원생의 번역으로 게재한다.

29. 32회 나온다. 1 : 14, 2 : 1, 11, 15, 17, 19, 21, 23, 26, 3 : 19, 4 : 4, 7, 8, 16, 5 : 6, 9, 6 : 2, 4, 9, 11, 12, 7 : 6, 15, 8 : 10, 14(2), 9 : 9(2), 그러나 Kittel은 다른 본문을 사용하여 더 보여주고있다. 11 : 8, 10, 12 : 8.

30. 새 성경 주석(New Bible Commentary) (1953)538, K. Galling “시도한 일에 결과가 없는것.” 구약편람(1969) 79. 70인 역은 hbl을 *ματαιότης*와 *ἀνευος* (5 : 5, 11 : 4) 라고 번역하고 있어 윤리적으로 나쁜 의미를 나타내려고 하였다: 히브리 기자는 사람이 삶에 있어서 의미를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고 말하는 반면, 헬라 번역자는 인간이 그것을 발견할 수 없을때 인간의 영혼에 해롭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다.” Nielsen Ibid. 170

31. Von Rad 구약성경 신학 I 권 458. 나는 해 아래서란 의미에서만 그에게 동의한다.

32. Class note

33. Loretz. “하나님의 사역은—“Gottes wirken be zweckt vjelmanhr die Erweckung des positiven Vehäetnisses der Gottes Flnechtzuhim’op. cit. 289.

34. D. Kidner : “그러나 이제 개찬자(改者)나 교정자의 작품처럼 역설적인 표현들을 제거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용어를 받아들여기가 일반적으로 더 쉬워진 것이다.” “구약의 지혜 문학.” 구약의 새전망 J. B. Payne (편).

35. “심판(Judgement)에 대한 다른 개념들.” 아마 이것은 인간의 모든 시도를 앗아가는 죽음 이상의 의미는 아닌것 같다. Kidner. Ibid. 130.

36. Kidner : Ibid